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KOREA' 시즌 6, 5회 김  
신록 실 틈 없이 얼굴 갈아 끼웠다! 씩스틸러에서 웃음스틸러로  
감탄의 무대 완성!

2024. 9. 29.











파격적인 웃음, 과감한 풍자로 대한민국 트렌드를 이끄는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의 5회 호스트 김신록이 설 틈 없는 캐릭터 변신으로 첫 코미디 무대를 완벽하게 완성했다.

각종 화제성 지수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쇼 자리를 지키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 6는 매 회 최정상 호스트들의 끼와 열정 넘치는 도전과 코미디 연기로 매주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

특유의 당찬 웃음과 자신감 넘치는 포부로 무대를 활짝 연 김신록은 곧바로 감탄을 부르는 연기로 화려한 변신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결혼을 위해 과거로 돌아간 김신록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넘나들며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으로 변신해 원훈, 혁수, 민교, 진혁과 선 넘는 19금 연기를 선보였다. 여기에 신내림을 받은 낭만 무당을 연기하며 신들린 MZ 아르바이트생, 욕쟁이 할머니, 조강지처, 할아버지까지 변화무쌍한 캐릭터 연기 차력쇼를 펼쳤다.

또한, 원훈의 둘째 누나로 등장, 첫째 누나 안영미와 모두가 기다리던 도플갱어 케미로 현실 고증 코미디 연기에 정점을 찍었고, 초보 유튜버에 도전한 순양그룹 막내딸 ‘진화영’으로 등장해 순양가의 공개 된 적 없는 모습을 가식 넘치는 매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폭발적인 웃음을 이끌어냈다.

볼 때 마다 다른 배우 같은 찰진 캐릭터 연기 변신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은 김신록은 “‘SNL 코리아’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영광스럽다. 관객분들의 많은 호응에 깊은 감사드린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현장 방청 신청은 쿠팡플레이 내 쿠플클럽을 통해 매주 진행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